

# Style 조선일보

APRIL 2020  
vol.204



## Van Cleef & Arpels

Haute Joaillerie, place Vendôme since 1906





# PIAGET



 *Loro Piana*



중앙에 DEF 및 F-VVS 등급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반클리프 아펠의 프라블 글립 펜던트. 산들바람에 춤추는 꽃처럼 경쾌하고 인체학적인 프라블® 컬렉션 제품이다. 미리 롤리싱 기법으로 완성한 눈부신 하트 모양 골드 꽃잎이 시선을 사로잡는다. 문의 1668-1906



- 10 **SELECTION** 자연이 살아 숨쉬는 듯한 패션 정글 탐험.
- 12 **BELLE ÉPOQUE & MUSIQUE** 우리가 지금도 쉽게 일상에서 벨 에포크의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매개체는 음악일 것이다. 베를리오즈, 구노, 비제 등 19세기를 수놓은 음악가들부터 생상스, 포레, 드뷔시, 라벨 등으로 이어지는 벨 에포크 시대는 프랑스 음악의 최전성기로 꼽힌다. 특히 벨 에포크는 우리에게 사구 문명을 본격적으로 수용하던 근대와 궤를 같이한다. 당연히 벨 에포크 음악이 처음 접한 사구 음악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었다. 아름다운 시나 서정적인 가사를 붙여 주로 파노반주에 맞춰 노래하는 프랑스 예술 가곡을 멜로디(Melodie)라고 하는데, 이 개념을 처음 적용한 작곡가는 베를리오즈로 알려져 있다. 그의 사후에 펼쳐진 벨 에포크 시대에는 빼어난 가곡이 많이 나왔다. 벨 에포크라는 이름은 잘 알려졌으나 후세에 알려지지 않았다.
- 14 **EXQUISITE TOUCHES** 쉽게 닿을 수 없어 더욱 아름다운 하이 주얼리 세계로의 초대.
- 15 **INTENSE BLUE** 짙은 블루 컬러 다이얼과 단단한 스틸 브레이슬릿이 만들어낸 우직한 매력.
- 16 **BAG STAGE** 2020 S/S 시즌을 설명하는 네 가지 백 트렌드와 주요 브랜드의 신제품.
- 17 **WALK THE TREND** 발끝에서 트렌드를 즐기는 몇 가지 근사한 방법.
- 18 **SPRING TEMPTATION** 봄, 화려한 프린트와 트렌디한 잇 백에 반하다.
- 26 **MEET THE CONTEMPORARY** 흔히 포스트모던 시대의 미술을 가리켜 '현대미술'이라고 부르지만 미술계에서 '컨템퍼러리(Contemporary)'라는 단어는 대개 '동시대'로 번역된다. 역사적인 관점과 개념으로 볼 때 '동시대 미술'은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막을 내린 뒤부터 오늘날까지 진행 중인, 그러니까 '전후 현대미술'을 뜻한다. 그만큼 전쟁은 끔찍한 상처를 남겼고, 이후 많은 것이 변화했다. 특히 주범이자 패전국인 독일의 자괴감과 트라우마는 상상 이상이었을 것이다. 고노와 같은 예술적 에너지를 폭발시킨다고 했던가. 그래서인지 독일에서 걸출한 아티스트가 많이 나왔다. 어떠한 양식도 강령도 방향도 지향하지 않는 '포스트모던'의 시대정신을 구현해 현존하는 최고의 동시대 미술가로 평가받는 게르하르트 리히터도 전쟁의 포화로 색채가 뒤틀린 옛 동독 드레스덴 출신이다. 마침 서울에서 오늘날 독일을 무대로 활약하는 동시대 작가들의 세계를 엿볼 수 있는 전시가 개최되어 주목된다.
- 28 **SCENT OF SPRING** 싱그러운 나뭇잎과 살랑이는 바람. 봄에 잘 어울리는 향수 6.
- 29 **LOVE YOUR EYES** 주름과 탄력, 다크서클과 아이 백 등 다양한 눈가 고민. 이를 모두 한 방에 해결해줄 슈퍼 아이 크림 리스트 7.
- 30 **EDITOR'S PICK** 봄으로 물든 이탈의 뷰티 아이템.

# Style 조선일보

Issue.204 April 2020

대표 | 방정오 cbang@chosun.com  
 편집장 | 김유미 ymkim@chosun.com 피처 디렉터 | 고성연 amazingk@chosun.com  
 패션 - 뷰티 디렉터 | 정와은 rarara@chosun.com 에디터 | 이혜미 hmlee0909@chosun.com  
 이주이 juyi.lee@chosun.com 아트 디렉터 | 이은옥 okida0820@naver.com 교열 | 이장현  
 광고 - 마케팅 | 박영하 yhpark@chosun.com 김준석 adjoons@chosun.com  
 이정희 lh5567@chosun.com 분해 - 채판 | 라온 인쇄 | 타라티피에스  
 발행처 (주)스타일조선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 413 현대 하이패리는 비즈나스센터 110호  
 기사 문의 02-793-5330 광고 문의 02-793-5339

매일 첫째 주 수요일에 발행하며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목동, 여의도, 한남동, 동부이촌동, 평창동, 성북동, 경기도 성남 분당구, 부산 해운대구, 수원, 동래구, 남구, 연제구, 대구 수성구의 조선일보 구독자에게 배달됩니다.

※ 3·4·9·10월은 첫째, 셋째 주 수요일에 각주로 두 번 발행됩니다.  
 ※ 수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발행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스페셜 에디션은 일로 발행됩니다.



**stylechosun.com**

〈스타일 조선일보〉 홈페이지는 동성한 선물 이벤트, 실질적인 정보의 리서치 브랜드 갤러리, 품격 있는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고 지원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준비하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과학호를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구독할 수 있는 'E-magazine'이 여러분과 〈스타일 조선일보〉를 더욱 가깝게 만들어드립니다. 역사적 그 이상의 감각과 품격이 함께하는 〈스타일 조선일보〉 홈페이지, 지금 바로 방문해주세요. stylechosun.com



답다이 실크 스카프를  
패치워크한  
쓰리 버튼 재킷.



Innovation in the making.

**Fashion BAGS IN BLOOM**

가방 위에 핀 꽃으로 만끽하는 봄.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하우스의 노련한 인레이 기술을 사용해 다채로운 컬러의 송이자극 조각으로 플라워 패턴을 구현한 미디엄 사이즈 바게트 백 4백18만원 **팬디**, 핸드 패턴느낌의 이터스틱한 프린트가 돋보이는 캔버스 소재 핸드백 2백60만원 **마유미유**, 고풍스러운 플라워 프린트와 러플 장식이 사랑스러운 스몰 사이즈 파스파르노 백 67만6천원 **워커펀드 맥스미라**, 에디터 **이혜미**

**Jewel COLOR THERAPY**

생동감 넘치는 컬러가 전하는 밝은 가을.



(위부터) 블루드 파리 기요세 기법을 적용한 다이얼에 은빛으로 수놓은 로마자 인덱스가 우아하다. 오토매틱 무브먼트로 구동하며 최대 80시간의 파워 리저브 기능을 갖췄다. 90만원대 **타스**, 다이얼에 세련한 수백 개의 딥 레드 크리스탈이 산티모노 분위기를 전하는 크리스탈 글램 워치. 54만9천원 **스위코브스기**, 그래픽 마감 처리한 화이트 다이얼 위에 그린 컬러 일러스트 스톤 장식과 폴리싱 처리한 이클레틱 인덱스가 인제적인 조화를 이룬다. 오토매틱 미도 칼리버 80으로 구동하며 최대 80시간의 파워 리저브를 제공한다. 1백24만원 **미도**, 미니멀한 디자인과 역동적인 컬러가 돋보이는 저음, 가볍고 내구성이 좋은 폴리머 세라믹으로 제작했다. 수심 30m 방수기능이다. 스텐인 스텔로우 4320W 2백34만원 **리노**, 지름 25.50mm의 작은 블루 다이얼에 다이아몬드 인덱스를 사용해 고풍적인 매력을 전하는 문신 마스터 컬렉션 워치. 칼리버 595/592로 구동하며, 투명한 백 케이스를 통해 무브먼트의 움직임을 감상할 수 있다. 생활 방수 기능을 갖췄다. 2백만원대 **론진**, 에디터 **이주이**

**INSIGHT**

편견부가 없선한, 국내 및 해외에서 각광받는 이들의 최신 트렌드 & 주목할 만한 소스들.

**Book 벨 에포크를 배경으로 한 '예술가들의 파리' 시리즈**

파리의 명소 퐁피두 센터에 가면 조각의 거장 콘스탄틴 브랑쿠시(1876~1957)의 자취를 훑어볼 수 있는 별관 '이탈리아 브랑쿠시가 아담하게 자리한다. 예술적 재능이 풍부했던 가난한 청년 브랑쿠시는 루마니아 출신인데, 부쿠레슈티를 떠나 대부분 걸어서 파리에 도착했다고 한다. 그해가 1904년. 그 고달팠을 가난한 도보 여정을 가까이 감수할 만큼 당시 파리는 찬란한 문화 예술의 중심지였다. 서구 역사상 가장 '이름다운 시대'라는 의미에서 훗날 '벨 에포크(Belle Époque)'라 불린 빛나는 시절의 파리다. 대개 19세기 말부터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전까지의 시기(1890~1914)를 가리키는 이 눈부신 황금기를 전후로 한 재능 넘치는 인물들의 생동감 넘치는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현암사에서 펴낸 '예술가들의 파리' 3부작 시리즈를 추천한다. 파리로 건너간 브랑쿠시가 몽파르나스에서 만나 큰 영향을 준 모딜리아니, 30대 중반에 오절한 친구 모딜리아니와는 달리 20세기를 화려하게 살다간 파카스, 흥미진진한 우정과 경쟁을 피카소와 나눈 마티스 등 당대 최고의 미술가들은 물론 빅토르 위고, 에밀 졸라, 마르셀 프루스트, 헤밍웨이 같은 문인, 드뷔시와 라벨, 스트라빈스키 같은 음악가들 아우르는, 그야말로 '가성들의 에피소드'를 꽤 유익적으로 엮어놓았다. 흥미로운 움직임이 싹트는 여명기(1871~1900)를 다룬 <벨 에포크, 아름다운 시대>, 파리 만국박람회 이후 절정기를 조명한 <새로운 세기의 예술가들>(1900~1918), 마지막으로 제1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다방면에서 혁신이 사용되기처럼 몰아친 시기를 담은 <파리는 언제나 축제>(1918~1929). 이렇게 연대별로 나눈 3부작이다. 저자인 메리 매글리프는 역사학자지만 비범한 인물들의 역동적인 삶과 인간적 면모에 초점을 맞춘 소설처럼 이야기를 버무린다. 이 시기의 예술과 패션, 음악 등 전반적인 문화에 대한 상식을 갖추고 있다면, 혹은 오늘날까지도 반복히 회자되는 문화 예술적 광채와 그 배경의 아지각한 에피소드에 관심이 있다면 매력적으로 다가올 읽을거리다. 에디터 **고성연**



**Exhibition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틀루즈 로트렉展>**

(스타일조선일보)에 연재된 '벨 에포크' 시리즈를 마친 파리 문화 예술 황금기를 스쳐 간 작가 틀루즈 로트렉(Toulouse-Lautrec)을 집중적으로 조명하는 전시를 소개한다. 서울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에서 진행 중인 전시다(오는 5월 31일까지). 로트렉은 최근 미디어트유 자원에서 큰 규모의 전시로 소개된 또 다른 벨 에포크 시대의 스타 알폰스 무하와는 색과 결이 사뭇 다른 아티스트였다. 선천적인 유전자와 두 번에 걸친 사고로 152cm 정도의 키와 신체적 장애를 안게 됐지만, 로트렉은 예술의 거대 몸마르르와 밤 문화를 상징하는 대형 카바레 물랑 루주를 무대로 활약을 펼쳤고,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성세하고 정교하며 낭만적인 무하의 스타일과 달리 도시의 음지와 소외 계층을 포함한 파리의 모습을 사실적이면서 자신만의 느낌으로 매력적으로 묘사한 로트렉의 작품 세계는 그를 '물랑 루주의 작은 거인'으로 기억되도록 했다. 다양한 색채와 디자인의 각종 포스터 작품으로 로트렉은 현재 그래픽의 선구자로 칭송받기도 한다. 이번 전시는 그라스 아티네에 위치한 헤라클레토 박물관 컬렉션 선 주품 1백50여 점과 사진, 영상 등으로 이뤄진 총 9개의 섹션으로 구성했다. 유화 가운데 딱지 없는 점은 아랍산인 그의 철학이 느껴지는 판화 및 포스터, 드로잉 작품을 두루 접하는 재미가 있다. 관람 시 마스코 착용과 손 소독제 사용은 필수 에티켓 문의 www.sackick.co.kr 에디터 **고성연**

**Beauty DAILY SKIN SAVER**

건조한 대기와 유해 물질로 외부 자극이 심해지는 봄철, 여기에 마스크 착용까지 더해지며 피부가 한껏 예민해진 걸 느낀다면, 데일리 스킨케어 루틴에 다음의 제품들을 더해볼 것. 피부 균형 유지와 트러블 케어에 도움을 줄 뷰티 아이템 5.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시슬리 마스크** **고센 오 레진 트로피칼** 트러블로 고민하는 자성 피부를 위한 워시오프 타입 마스크. 화이트 클레이(카올린), 알파하 송진, 우영 추출물, 왕갈매기 추출물 등의 활성 성분을 담아 피지 흡착·조절, 피부 진화·진정 및 수분 공급에 뛰어난 효과를 보인다. 일주일에 1~2회, 깨끗이 세안한 얼굴 전체에 두껍게 바르거나 트러블 부위에 부분적으로 도포한 다음 10분 뒤 미온수로 씻어낸다. 60ml 13만원. **이슬 킨트** **에안피** **피부**를 포괄해 모든 피부 유형에 사용할 수 있는 젤 타입 트러블 스킨 케어 제품. 화학적 각질 제거제인 피부 세포의 세대를 빠르게 변화시키는 살리실산(BHA)을 포괄해 주기능으로 생기는 작은 점포 또는 붉게 올라오는 트러블을 가려준다. 휴대하기 편한 사이즈로 화장 전후 단계에 수시로 사용하면 좋다. 9ml 2만7천원. **달랑 인트랄 레디스 빌리프 수딩 세럼** **달랑** 연구소에서 인공한 피부를 위해 개발한 유호 성분 복합체 '칼 콜라겐'을 담아 양감, 탄력기법, 열감 등 트러블로 발생하는 불쾌감을 줄이고 피부를 부드럽게 진정시킨다. 30ml 8만5천원. **카멜 시카 크림** **마카스카르** 자연의 생체 리듬과 아미노산과 불리는 병행해서 추출한 마카스카르 성분은 함유해 약해진 피부 장벽을 강화하고, 손상된 피부를 빠르게 회복시킨다. 순하고 리한 포물리로 붉게 자극받은 피부가 즉시 촉촉하게 진정되는 것을 느낄 수 있다. 50ml 5만9천원. **이브를 by 리베르 레스큐** **토너** 자연에서 유래한 AHA 성분, 메카모드 추출물 및 기타 식물성 추출물을 혼합한 포물라가 피부 각질을 자극 없이 제거하는 동시에 충분한 보습과 진정 효과를 부여한다. 클렌징 후 화장솜에 제품을 적셔 얼굴과 목을 꼼꼼히 닦아내며 사용하면 수분 밸런스가 무너지지 않는 건강한 피부를 가꿀 수 있다. 150ml 11만원 에디터 **이혜미**



www.brunellocucinelli.com



# Selection

자연이 살아 숨쉬는 듯한 패션 정글 탐험.  
 photographed by yum jung hoon, hwang in woo

FF 로고로 포인트를 준  
 라미아 햇가방이 인기입니다.

플립과 스트랩에  
 비스코스과 송아지 가죽을  
 덧댄 노르딕 라미아 송아지  
 2백40만원 상당 by  
 인투니 바가벨로.

에티아피아 아사넬트 조스케

엘라 카베라가 모리스 라비니 단풍 털이 스트랩을  
 장난감 애플을 유머 1백40만원에 아메리카.

18K 옐로 골드와 에벤추어를 조합해  
 엄밀 속에서 자라는 작은 선인장을  
 표현했다. 다이아몬드 세팅으로  
 우아함을 배가한 컷투스트 캐르페에  
 이어링 1천4백만원에 캐르페에.

고급 장식이 엮여있는 원스타치  
 레더 벨트 2천2백만원에 홀로 말로 로렌.

렐 스킨 에스파드리유  
 88만1천원 사렐.

탈착 가능한 가죽 슬더  
 스트랩을 더한 시티  
 스포츠 가죽 뽀뽀 바가벨  
 1백88만원 마우미우.

니롱과 인공가죽  
 주얼링이 결합된 스트랩을  
 가죽이 감싸고 있다.

이세테이트로 제작된 GV 아-미  
 선글라스 가격 미정 자참시.

에스노를 캔버스  
 브레이크 세트  
 70만원에 다용.

부드러운 카프 스킨과  
 견고한 텍스처로 만든 아우슬이  
 조화로운 스포츠 75만원  
 삽바틀레 바가벨로.

레이어는 실로 트윈의 카프 1천90만원  
 홀로 바이 바가벨로.

- 에르메스 02-542-6622
- 펜디 맨 02-2056-9023
- 프라다 02-3218-5331
- 버버리 080-700-8800
- 생 로랑 by 인투니 바가벨로  
02-549-5741
- 까르피에 1566-7277
- 몰체안지 바나 02-2092-6643
- 홀로 말로 로렌 02-6004-0220
- 샤넬 080-200-2700
- 마우미우 02-3218-5331
- 자참시 02-546-2790
- 다들 02-3480-0104
- 발렌티노 02-2051-4653
- 삽바틀레 페라카모 02-3430-7854
- 콜롬보 바이 엘라 스카가 02-2230-1225

양종맞은 새 모티브  
 삽바틀레  
 60만원에 프리다.

레드 드래곤 프린트 실크 셔츠 1백40만원 발렌티노.



# Brooks Brothers

THE ORIGINAL AMERICAN BRAND

- 현대 판교점 6F | 031.5170.1634
- 현대 충정점 4F | 043.909.4475
- 현대 목동점 B1F 레드플러스 | 02.2163.1993
- 현대 미아점 5F 레드플러스 | 02.2117.1555
- 갤러리아 광고점 5F | 031.5174.7511
- 갤러리아 타임월드점 6F 레드플러스 | 042.720.6618
- 롯데 에비뉴엘 잠실점 4F | 02.3213.2490
- 롯데 창원점 5F | 055.279.3517
- 롯데면세점 코엑스점 B1F | 02.2052.6337
- 스타필드 코엑스몰 B1F 레드플러스 플래그십스토어 | 02.6002.1818
- 신세계 강남점 7F 레드플러스 | 02.3479.1383

BROOKSBROTHERS.CO.KR



이름다운 시대의 가치를 돌아보다 ③

# belle époque & musique

우리가 지금도 쉽게 일상에서 벨 에포크의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매개체는 음악일 것이다. 베를리오즈, 구노, 비제 등 19세기를 수놓은 음악가들부터 생상스, 포레, 드뷔시, 라벨 등으로 이어지는 벨 에포크 시대는 프랑스 음악의 최전성기로 꼽힌다. 특히 벨 에포크는 우리에게서 서구 문명을 본격적으로 수용하던 근대기와 궤를 같이한다. 당연히 벨 에포크 음악이 처음 접한 서구 음악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었다. 아름다운 시나 서정적인 가사를 붙여 주로 피아노 반주에 맞춰 노래하는 프랑스 예술 가곡을 '멜로디(Mélodie)'라고 하는데, 이 개념을 처음 적용한 작곡가는 베를리오즈로 알려져 있다. 그의 사후에 펼쳐진 벨 에포크 시대에는 빼어난 가곡이 많이 나왔다. 벨 에포크라는 이름은 잘 알려졌던 시피 후세에 붙여졌다. 두 번의 커다란 전쟁을 치르고 난 뒤에야 사람들은 비로소 그때가 바로 아름다운 시대, 벨 에포크(Belle Époque)였다는 것을 깨달았다. 세계적으로 많은 시련과 희생을 겪고 있는 현 시점의 지구촌에도 벨 에포크 음악은 '치유의 수단'이 될 수 있을 듯하다.

일찍이 중세의 종교음악에서 벗어나면서 이탈리아, 독일 같은 주변 음악 강국에서 나타난 흐름을 놓치지 않았던 프랑스 음악계는 고전, 낭만과 시대를 지나면서 루이 엑토르 베를리오즈(Louis Hector Berlioz, 1803~1869)라는 선구자를 맞이한다. 다만 그는 당대 사람들에게는 크게 공감을 얻지 못했다. 19세기 중·후반으로 접어들면서 샤를 구노, 앙브루아즈 토마, 카미유 생상스, 쥘 마스네 같은 음악가들이 등장했고, 프랑스적인 스토리와 현대적 감각이 반영된 오페라의 주요 레퍼토리가 완성됐다. 하지만 이 작품들은 시각적 화려함 이외에는 음악적 발전이 별로 엿보이지 않는다는 결함을 지니고 있었다. 조르주 비제(George Bizet)의 오페라 <카르멘>이라는 예외가 있기는 하지만 말이다. 18세기만 해도 유럽의 음악은 모차르트와 베토벤이 압도하고 있었다. 독일-오스트리아 스타일의 소나타와 교향곡이 전 유럽에 걸쳐 유행했다. 또 뒤를 이어 등장한 리하르트 바그너라는 '넘사벽' 거장 때문에 새로운 시도 자체가 힘든 시기였다. 그 와중에 프로이센과의 전쟁(1870~1871)에서 패배한 프랑스는 민족적인 자존심을 회복할 계기가 필요했다. 음악계에서는 '국민음악협회(Société Nationale de Musique)'가 창설돼 그 역할을 맡았다. 천재 음악가로 언어, 문학, 철학 등 다방면에 뛰어난 재능을 보였던 생상스가 주도한 이 협회에는 쥘 마스네, 세자르 프랑크, 앙리 뒤파르크, 가브리엘 포레 등의 작곡가가 참여했다. 이 음악가들은 프랑스 기악 음악의 전성기를 이끌기 시작한다. 그들은 관현악, 실내악, 피아노곡 등에 걸쳐 탁월한 걸작을 남겼으며, 중세 교회음악의 전통을 도입해 독일 낭만주의 음악과의 차이를 드러냈다. 올 초 현안사가 펴낸 <벨 에포크, 아름다운 시대>에 따르면 생상스는 목표대로 젊은 음악가들을 육성했지만 취향은 다분히 전통적이었고, 초기에는 클로드 드뷔시에 대해서도 호의적이지 않았다. 기존 형식이나 요소를 해체한 클로드 드뷔시는 인상주의 음악의 물꼬를 튼 후 프랑스 음악사에 획을 그은 중요한 인물이다. 이후 모리스 라벨의 등장과 함께 프랑스는 명성상부런 근대음악의 최정점에 섰다. 물론 이 시기가 벨 에포크 시대와 겹친다는 사실은 결코 우연이 아닐 것이다.

**프랑스 문화를 비문 '살롱'이라는 공간**  
대체로 프랑스 최초의 살롱을 연 인물은 랑부에(Rembouillet) 후작 부인으로 여겨진다. 마치 르네상스 시대 궁정을 연상시키는 예절과 품위가 넘치는 사람들의 지적 대화의 장을 만들었던 랑부에 후작 부인의 살롱이 커다란 인기를 모으고, 여러 살롱이 속속 생겨나면서 살롱

이라는 공간은 프랑스의 문화를 이끄는 중요한 사회현상으로 자리매김했다. 살롱의 성공 뒤에는 각자의 자존심과 명예를 걸고 초대객, 토론, 공연, 식도락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가치를 인정받고 싶어 하고 사교계의 여왕이 되고자 하는 부단한 노력을 기울인 여주인들이 있었다. 산업혁명 이후 새로운 문물이 쏟아진 벨 에포크 시대에는 살롱 여주인들의 취향에 따라 문학·음악·미술·과학·패션 살롱이 다양하게 열렸다. 인기 많은 살롱일수록 지식인은 물론 재능이 뛰어난 연주자와 작곡가, 그리고 미술가를 연결하는 지금의 화랑이나 아트딜러 역할을 능숙하게 수행했다. 또 살롱에서는 사회적 직위나 가문보다 타인을 사로잡는 화술과 매력의 최고 덕목이었다는 점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남녀가 자유롭게 만날 수 없었던 당시 시대상을 생각해보면 대화와 토론을 통한 간접적 '사교 방식'이 사람들이 왜 열광했는지 수긍이 간다. 특히 살롱에 모인 사람들은 공통의 주제와 취향을 놓고 대화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교양을 쌓으며 지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따라서 살롱은 여문 형성에 커다란 역할을 함으로써 사회적 중요성을 갖추게 되었다. <살롱 문화>라는 책(살롱 펄뎀)에서 저자 서정복은 살롱이라는 공간이 비단 문화뿐만 아니라 계몽사상을 전파하면서 토론이 라는 프랑스의 문화적 전통을 수립했다고 전한다. 직업 있는 여성이 드물던 시대에 여자들이 당당히 경영권을 행사했다는 점도 살롱 문화의 흥미로운 면모다. 당시 살롱은 단순한 사교장이 아니라 여성의 사회 진출을 돕고 신분, 남녀 간의 사회적 경계를 타파했으며, 새로운 지식사회를 형성한 문화와 지성의 산실이었던 셈이다.

**레날도 안에게 보낸 마르셀 프루스트의 편지**  
살롱을 통해 씩씩 튀어나와 성장한 프랑스 특유의 대화와 사고의 정신은 벨 에포크 시대를 넘어 20세기를 통틀어 최고의 수작으로 꼽히는 소설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À la Recherche du Temps Perdu)>를 쓴 마르셀 프루스트(Marcel Proust)를 탄생시킨다. 그는 일찍이 당시 파리의 최고 살롱이던 마들렌 르메르 부인의 살롱, 스트로스 부인 살롱, 후에는 그레필(Greffulhe) 백작 부인의 살롱 등을 누비면서 문화적 소양을 보다 풍부하게 쌓고, 사교계의 다양한 인간 군상을 관찰하며 영감을 얻는다.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가 20세기 최고의 소설로 꼽히는 주된 이유 중 하나는 이 작품이 회상과 현실을 오가는 자아를 통해 삶의 진정한 의미를 되찾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생각의 흐름'에 대한 탐구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이 작품에서 프루스트는 특유의 비유와 은유적 표현으로 벨 에포크의 시대상과 사람들의 의식을

세밀하게 묘사한다. 덕분에 그는 이 작품으로 프랑스 문화계 최고 영예인 콩쿠르상을 받기도 했다. 그런데 프루스트가 당대 최고의 소설가로 성장하고 활약한 인생 여정과는 별개로 2012년 프랑스에서 그의 또 다른 삶의 궤적이 잔잔한 반향을 일으켰다. 생전에 프루스트가 굳이 숨기지 않았던 그의 친구이자 동성 파트너인 작곡가 레날도 안(Reynaldo Hahn)과 나눈 서신들이 책으로 재출간(갈리마르, 1956년 초판)됐기 때문이다. 사실 단지 프루스트의 후광에 머물기에는 레날도 안은 음악가로서도 존재감이 꽤 컸던 인물이다. 특히 그의 가곡들은 미려한 선율과 문학성 넘치는 가사로 유명하며, 프루스트와의 관계를 생각해보면 그가 왜 아름다운 시에 집착했는지 이해가 된다. 어린 시절부터 음악에 소질을 보였던 레날도 안은 파리 음악원에서 오페라 작곡가로 유명한 쥘 마스네에게 사사했다. 헬기왕성한 시절부터 프루스트처럼 파리의 유명 살롱을 섭렵하기도 했다. 그는 프루스트가 매년 새로운 원고를 써놓으면 가장 먼저 읽고 조언을 건넸다. 사실 처음에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는 지나치게 난해하고 관념적이라는 이유로 파리 출판계에서 번번이 퇴짜를 맞았다. 레날도 안은 이에 정면으로 반기를 들고 성공한 작곡가로서의 명성과 인맥을 동원해 출판사를 설득함으로써 프루스트의 명작이 세상에 나오도록 애쓰 조력자 역할을 했다. 그는 프루스트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25년 동안 활발하게 음악 활동을 펼쳤다. 6개의 오페라와 10여 개의 오페레타, 9개의 발레곡, 그리고 내 노래에 날개가 있다면을 비롯한 수많은 가곡과 피아노곡, 협주곡을 쓴 그는 1945년에는 파리 오페라좌 단장 자리까지 오른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프루스트가 세상을 떠나자 자신에게 명성을 가져다준 가곡을 단 한 곡도 내놓지 않는다. 아마도 이미 작곡가로서의 영광과 기쁨을 맛본 레날도 안에게는 후대의 평가나 영광보다는 프루스트와 공유하던 자신의 세계가 더욱 소중한 게 아닐까.

**시를 노래하다, 멜로디 프랑세즈(Mélodie Française)의 미학**  
흔히 '멜로디'라고 불리는 프랑스 예술 가곡(Mélodie Française)은 문학과 음악의 결합이라는 특성 때문에 흔히 독일의 가곡, 리트(Lied)와 비교되곤 한다. 19세기 이후 낭만파 서정시의 자극을 받아 음악과 시의 이상적인 융합을 추구한 리트는 방대한 양을 자랑한다. 작곡가 도 슈베르트, 슈만, 브람스 같은 쟁쟁한 이름을 꼽을 수 있다. 프랑스 가곡인 멜로디는 상대적으로 수가 적다. 하지만 베를리오즈의 뒤를 이어 등장한 거의 모든 벨 에포크 시대 작곡가들이 멜로디를 남겼다. 이는 당시 문화 예술계의 허브이자 교류의 장소이던 살롱이라는 무

대가 뒷받침된 덕분이다. 프랑스 문학의 최정점에 맞춰 비토르 위고라든가 폴 베렐렌, 스테판 말라르메, 샤를 보들레르 같은 불세출의 문학가가 지은 아름다운 시들이 당대 작곡가들에게 영감을 줬고, 덕분에 대중적으로도 잘 알려진 가곡이 여럿 탄생했다. 다시 말해 프랑스 예술 가곡은 벨 에포크 시대를 배경으로 빛나는 살롱 문화와 프랑스 문학, 그리고 음악의 황금기라는 3박자가 절묘하게 맞아떨어지면서 빛나는 결정체라 할 수 있다. 멜로디는 음악 형태를 따지는 하지만 문학성이 매우 중요한 장르였기에 가수에게도 뛰어난 기량력은 물론이고 시에 대한 남다른 이해도와 감성, 전달력을 요구했다. 그렇기에 제아무리 기량력이 뛰어난 오페라 가수라 해도 멜로디를 부를 때면 시를 낭송하듯, 속삭이듯, 노래가 지닌 스토리와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 '진지모드'로 몰입하게 된다.

"드뷔시를 정말 좋아하는데 '별이 빛나는 밤(Nuit d'étoiles)' 같은 곡은 음악적으로 코드 진행이 아주 절묘합니다. 가사와 음악의 조화도 대단하죠. 멜로디 프랑세즈를 부를 때는 작곡가의 성격, 성장 배경, 곡을 작곡할 당시의 상황을 알아야 하고, 악보에 적혀 있지 않은 것들을 찾아내야 합니다. 무엇보다 가수가 자신의 감동을 표현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런던의 로열 오페라를 중심으로 유럽에서 활약하고 있는 테너 김건우(Konu Kim)는 멜로디 프랑세즈에 대한 석가로서의 관점을 이렇게 설명했다. 그의 말처럼 아름다운 것에 대한 감동, 또 그 감동에 대한 추구야말로 르네상스 이후 서양 역사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대로 꼽히는 벨 에포크의 비밀을 푸는 열쇠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지난해 벨 에포크 시대 최고의 여배우 사라 베르나르를 추억하는 빼어난 진실을 선보여 일본에서 호평과 동시에 진정한 감동을 불러온 도쿄 쇼토 미술관(The Shoto Museum of Art) 큐레이터 니시 미야코(西美弥子)는 오늘날에도 끊이지 않는 벨 에포크를 향한 관심과 애정을 다음과 같이 해석한다. "벨 에포크 시대의 예술은 상징주의라든가 야수파, 큐비즘, 장식미술에 있어서의 아르누보 등 양식이 다양하죠. 그런데 작가들의 감정 표현이 정확하고 직접적이어서 보는 사람들의 감동이 더욱 극대화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녀의 말처럼 작곡의 '뉴트로' 열풍 속에서 거듭 조명되고 있는 벨 에포크의 정수는 아마도 아름다움에 대한 순수한 감동, 그리고 그 미적 가치를 전하려 부단히 노력했던 창조적 영혼들의 행보가 아닐까 싶다. 초현실적인 재난 영화에서나 불법한 현실을 살고 있는 우리가 이 아름다운 시대에 끌리는 이유이기도 할 테고 말이다.  
글 **심우현**(프랑스어역자) 저자 Edited by 고상현

# exquisite touches

쉽게 닿을 수 없어 더욱 아름다운 하이 주얼리 세계로의 초대.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왼쪽부터) **카르띠에 칼라비네 크로노그래프** 자제 제작 무브먼트 칼라비네 68375로 구동하는 셀프 와인딩 워치, 시, 분, 초 단위의 크로노그래프 기능을 갖추었으며 3시 방향에 위치한 인디케이터로 날짜를 확인할 수 있다. 1천25만원. **파네라이 루미노르 마린나 44MM** 다이아 워치로 유명한 오토매틱 기계식 워치, 인하우스 제작 칼라비네 P.9010을 장착했으며, 블루 선-브라스트 다이얼과 대조되는 노란색의 인덱스와 아워 마커 덕분에 어두운 상태에서 가독성이 높다. 약 300m까지 가능한 방수력이 장점이다. 1천만원대. **볼카리 트로이아** 자를 41mm 크기 팔각 케이스 디자인이 돋보이는 제품, 기계식 양방향 셀프 와인딩 무브먼트인 칼라비네 BVL 191 솔로 템포를 장착했다. 58개 단면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유연한 브레이슬릿을 통해 착용 시 부드럽고 편하다. 8백만원대. **피아제 풀로 S 워치** 42mm 케이스에 시, 분, 초 크로노그래프와 날짜 표시 기능을 담았다. 수평 기어세 기어를 적용한 블루 다이얼에 아랍 numerals를 갖춘 아틀라케 인덱스를 장식해 입체적인 디자인이 특징이다. 투명한 백 케이스로 정교한 기계식 워치의 매력을 흠뻑 느낄 수 있다. 1천만원대. **바세론 콘스탄틴 오버사이즈 얼 타임** 각진 면으로 처리한 골드 아랍 핸즈와 아워 마커, 6개의 홀으로 표현한 매종의 연골질 말테크로스를 형상화한 베젤로 볼륨감을 살린 디자인. 기계식 셀프 와인딩 무브먼트 칼라비네 5110 DT를 장착했으며 아워 핸즈가 현지 타임 존을, 삼방향 회상표 모양 핸즈가 홈 타임을 가리킨다. 8시 방향에 장식한 낮과 밤 인디케이터는 홈 타임을 기준으로 하여 크라운을 양방향으로 돌려 조정할 수 있다. 3천1백만원대. **로자드 로자드 엑스칼리버 42** 42mm 블루 다이얼에 새겨진 클래식한 로마인 인덱스가 대담한 매력을 뽐낸다. 오토매틱 칼라비네 RD830을 장착했으며, 6시 방향에 스텔 세컨즈 카운터와 날짜창을 더해 기능을 살렸다. 1천8백30만원. **에거 르콜트르 플라티나 오토매틱** 회전형 내부 베젤, 아라비아 숫자와 조화를 이루는 기하학적 인덱스가 조화를 이루는 스포티한 디자인이 눈에 띈다. 2와 4시 방향에 각각 자리한 트윈 크라운으로 시간을 조정하고 베젤을 감을 수 있으며, 최대 40시간의 파워 리저브 기능을 갖춘 칼라비네 888E/1으로 구동한다. 1천만원대. **에디터 이주이**

**볼카리 세르펜티 하이 주얼리 네크리스** 벨이 따리를 들고 있는 듯한 형태의 네크리스는 비늘 모양의 개별 모티브를 유기적으로 연결해 역동적인 생명력을 묘사한 동시에 착용자의 편의를 위해 유연함을 부여했다. 화이트·옐로 골드 보드에 총 10.06캐럿에 달하는 마키즈 컷,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장식했고, 특히 벨의 머리과 꼬리 부분에는 8.65캐럿 다이아몬드를 파베 세팅해 광채를 극대화했다. 벨의 눈과 몸 일부를 장식한 총 71개의 라운드 컷, 페어 컷 에메랄드는 신비로운 무드를 더한다. 가격 미정. 문의 02-2056-0170

**부세론 풀월드 핑 리지 링** 자연의 아름다움을 주얼리에 완벽히 재현한 청라자 프레데리크 부세론의 탐미적 사색을 감상할 수 있는 피스. 공작새 깃털의 기암과 부드러운 감촉이 고스란히 전해지는 유려한 곡선형 디자인의 화이트 골드 링은 날개 펼쳐진 깃털 모티브가 손가락 두어 개를 감싸는 크기로, 총 3백18개의 라운드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하고, 0.51캐럿의 로즈 컷 다이아몬드 스톤으로 방점을 찍었다. 6천만원대. 문의 02-772-3508

**피아제 리얼라이드 싸니 사이드 오브 라이프 브레이슬릿** 친한 손으로 가득한 인생을 축하하고, 아름다운 자연을 찬미한다는 긍정적인 의미를 담은 컬렉션. 피아제의 극도로 섬세하고 예술적인 주얼리 공예 기술을 만끽할 수 있는 피스루. 화이트 골드 보드에 총 28.44캐럿에 달하는 4개의 트리아앵글 컷 다이아몬드, 5백47개의 라운드 컷 다이아몬드, 3개의 페어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했다. 가격 미정. 문의 02-540-2297

**피아제 8'0 다이아몬드 아이카프** 행운의 비전을 스스로 정의한다는 진부한 메시지를 담은 에티다그리자(8'0) 컬렉션의 동근 비늘 모티브는 끝없이 흐르는 물결, 무한대를 뜻하는 기호. 두 사람을 결속하는 매듭, 특정 문화에서 행운의 숫자로 여겨는 8 등 다양한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깃바위를 감싸는 입체적인 디자인의 화이트 골드 아이카프는 움직임에 따라 찰랑이는 드림 행차의 패어 컷 다이아몬드 4개,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 1백13개로 장식해 화려한 룩을 완성한다. 가격 미정. 문의 02-514-3721

**그라프 페어 세팅 루비 & 다이아몬드 아이링** 낭만, 열정을 상징하는 오묘한 붉은빛 루비를 투명한 다이아몬드와 나란히 배열해 컬러 스톤의 강렬한 아름다움을 부각한 하이 주얼리 드롭 아이링. 물결을 모방한 페어 세팅 루비 10.52캐럿, 페어 세팅 다이아몬드 5캐럿을 세팅했다. 가격 미정. 문의 02-2256-6810 **에디터 이주이**

# intense blue

깊은 블루 컬러 다이얼과 단단한 스틸 브레이슬릿이 만들어낸 우직한 매력.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우부터 시계 방향으로) **IWC 안테나-어 크로노그래프** 자제 제작 무브먼트 칼라비네 68375로 구동하는 셀프 와인딩 워치, 시, 분, 초 단위의 크로노그래프 기능을 갖추었으며 3시 방향에 위치한 인디케이터로 날짜를 확인할 수 있다. 1천25만원. **파네라이 루미노르 마린나 44MM** 다이아 워치로 유명한 오토매틱 기계식 워치, 인하우스 제작 칼라비네 P.9010을 장착했으며, 블루 선-브라스트 다이얼과 대조되는 노란색의 인덱스와 아워 마커 덕분에 어두운 상태에서 가독성이 높다. 약 300m까지 가능한 방수력이 장점이다. 1천만원대. **볼카리 트로이아** 자를 41mm 크기 팔각 케이스 디자인이 돋보이는 제품, 기계식 양방향 셀프 와인딩 무브먼트인 칼라비네 BVL 191 솔로 템포를 장착했다. 58개 단면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유연한 브레이슬릿을 통해 착용 시 부드럽고 편하다. 8백만원대. **피아제 풀로 S 워치** 42mm 케이스에 시, 분, 초 크로노그래프와 날짜 표시 기능을 담았다. 수평 기어세 기어를 적용한 블루 다이얼에 아랍 numerals를 갖춘 아틀라케 인덱스를 장식해 입체적인 디자인이 특징이다. 투명한 백 케이스로 정교한 기계식 워치의 매력을 흠뻑 느낄 수 있다. 1천만원대. **바세론 콘스탄틴 오버사이즈 얼 타임** 각진 면으로 처리한 골드 아랍 핸즈와 아워 마커, 6개의 홀으로 표현한 매종의 연골질 말테크로스를 형상화한 베젤로 볼륨감을 살린 디자인. 기계식 셀프 와인딩 무브먼트 칼라비네 5110 DT를 장착했으며 아워 핸즈가 현지 타임 존을, 삼방향 회상표 모양 핸즈가 홈 타임을 가리킨다. 8시 방향에 장식한 낮과 밤 인디케이터는 홈 타임을 기준으로 하여 크라운을 양방향으로 돌려 조정할 수 있다. 3천1백만원대. **로자드 로자드 엑스칼리버 42** 42mm 블루 다이얼에 새겨진 클래식한 로마인 인덱스가 대담한 매력을 뽐낸다. 오토매틱 칼라비네 RD830을 장착했으며, 6시 방향에 스텔 세컨즈 카운터와 날짜창을 더해 기능을 살렸다. 1천8백30만원. **에거 르콜트르 플라티나 오토매틱** 회전형 내부 베젤, 아라비아 숫자와 조화를 이루는 기하학적 인덱스가 조화를 이루는 스포티한 디자인이 눈에 띈다. 2와 4시 방향에 각각 자리한 트윈 크라운으로 시간을 조정하고 베젤을 감을 수 있으며, 최대 40시간의 파워 리저브 기능을 갖춘 칼라비네 888E/1으로 구동한다. 1천만원대. **에디터 이주이**



이주이



**Woven Leather**

하우스의 아이코닉한 피카부 백과 비케트 백을 다채로운 우븐 레더 소재로 선보인 팬디를 필두로 페라피노, 프라다, 로저 비비에, 3.1 필립 림 등 많은 브랜드 역시 가죽을 다채로운 방식으로 엮은 손맛 가득 느끼는 가방을 내놓았다. 그중 단연 이목을 끄는 브랜드는 고유의 인터랙티브 기법을 신선한 방식으로 재해석한 보테가 베네테로, 몇 시즌째 일종의 현상이라 일컬어도 될 만큼 큰 인기를 얻고 있다.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디니엘 리 고유의 동사대적 시선으로 버려진 유산을 입고 태어난 가방들은 이 트렌드가 시작된 어느 지점과도 맞닿아 있는 듯하다.



꼭 넓은 인터랙티브 패턴이 멋스러운 페디트 카세트 백 3백12만원 보테가 베네테라.

**Powerful Pastel**

절제된 컬러와 실루엣을 접목한 웨어러블한 소가 지배적인 가운데, 특히 빅 하우스에서 활약 중인 여성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들은 파스텔컬러를 사용해 낭만적 상상력을 펼쳤다. 사넬의 버니 비아는 파리의 낮은 지붕을 보며 누벨버그 시대의 당대 코코 샤넬이 디자인한 옷을 입고 연기했을 배우들을 떠올렸고, 이들을 뮤즈 삼아 컬렉션을 구성했다. 이에 핸드백을 포함한 컬렉션 전반에 핑크, 세린, 바이올렛, 파일 블루 등의 파스텔 팔레트를 극적으로 활용해 화사하고 화려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한편 자형사의 클레어 웨이트 켈러는 그녀의 주목가인 테일루빙 기술을 통해 자신감 넘치는 강인한 여성을 그려내며, 각진 실루엣과 거친 소재가 주는 느낌을 중화하고자 록과 핸드백 등 주요 액세서리에 기쁨 넘치는 방식으로 파스텔컬러를 녹여낸 모습.



(위부터) 미니 스타일 북 백 1백50만원, 일렉트릭 비엔, 사넬 19 콜롬 백 9백80만원, 사넬, 스담스 스타일 7백61만원, 로제 비비에, 마르 메르메스.

**Heeled Loafers**

팬디, 프라다, 구찌, 로에베, 루이 비통, 랑방 등 빅패션 하우스에서 모두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힐을 단 로퍼를 선보였다. 소재, 디테일에 변주를 더하며 보다 키 큰 모습으로 재탄생한 로페는 클래식이라는 범주에서 벗어나 다채로운 무드의 록에 조화롭게 녹아들었다. 슬랑백, 플, 펄프스 등 여러 스타일로 제안되며 당분간 꾸준히 유행을 이어갈 듯.



각각 화이트 카프 스킨, 체크 프린트 코튼 소재를 사용한 핑크 프랑나드 슬랑백 로퍼 힐 각 1백29만원, 팬디.

**Wooden Heel Shoes**

이번 시즌 액세서리군에서 가장 크게 두드러진 특징은 자연 소재 또는 친환경 소재의 사용. 스트로, 라탄, 뽕부 소재 기법은 물론이고 나무, 코르크 등을 다양한 모양으로 자르고, 깎고, 압축해 힐과 밑창으로 사용한 슈즈가 대거 등장했다. 보헤미안의 자유로운 무드 혹은 봄날의 목가적이고 여유로운 감성을 표현하기에 제격이다.



아름답게 조각한 청아한 우드 힐이 돋보이는 골드 컬러 웨지 스트랩 샌들 가격 미정 마유미유. 아이코닉한 크리스탈 버클을 대안 페이퍼트 에퍼와 매끈한 곡선형 우드 힐을 매한 비브 클로크 돌 1백51만원 로제 비비에.

# bag stage

2020 S/S 시즌을 설명하는 네 가지 백 트렌드와 주요 브랜드의 신제품. photographed by choi seung hyuk

# walk the trend

발끝에서 트렌드를 즐기는 몇 가지 근사한 방법. photographed by choi seung hyuk

**Canvas with Leather**

친환경적 패션 혹은 실용적 패션을 추구하는 이들을 위해 종종 하이엔드 브랜드에서 캔버스 백을 출시하는 사례가 있었지만, 요즘처럼 대다수의 빅 브랜드가 주요 모델에 캔버스 소재를 접목하는 일은 드물었던 듯하다. 이와 함께 발견되는 특징 중 하나는 캔버스와 레더 소재의 매치. 상반된 느낌과 물성을 지닌 두 가지 소재를 다채로운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고안했다는 점에서 소비자의 요구를 최대로 충족시키려 한 영모험이 느껴진다. 이번 시즌 버버리는 브랜드의 얼굴, TB 백과 포켓 백에 캔버스 & 레더 소재를 얹어 꾸준한 인기를 이어갈 예정이다. 토즈 역시 새로 론칭한 모그렘 T 버클 장갑의 플립 백에 캔버스 & 레더 바지를 추가했는데, 모던과 레트로를 동시에 갖춘 무드가 최근 트렌드와 잘 부합하는 듯. 그 밖에 구찌, 막시마라, 생 로랑 등에서도 다채로운 모델을 찾아볼 수 있다.



(위부터) 캔버스와 레더 소재 T 백 2백 02만원, 토즈, 미니 스타일 북 백 1백50만원, 로제 비비에.

**New Basket**

S/S 시즌 런웨이 에 유독 자주 등장한 바구니 모양의 바스켓 백을 팬한 피크니 백 정도로 생각하면 오산이다. 과거로 10년 가까이 전의 레트로 무드를 고조시키는 역할을 톡톡히 했기 때문. 원 티셔츠부터 오버사이즈 피크니 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바스켓 백이 등장한 데다 최근에는 1970년대 보헤미안 워드브로에서 영감을 얻어, 모델들의 손에 걸려뭉친 진사로 장식한 바스켓 백을 뛰어넘어 미니 소를 집고할 것, 에디 슬라임의 슬림 노 역시 1970년대 프렌치 부르주아 스타일과 바스켓 백의 완벽한 공명을 보여줬고, 1920 - 1970 - 1990년대 뉴앙스가 공존한 로에베 다 쇼에서는 레더, 우드, 로프 등 다양한 소재를 사용한 바스켓 백이 등장했다. 한편 몇몇 브랜드는 바스켓 백의 디자인적 특수성을 심플, 조형, 절제된 하우스의 진보한 기술력을 보여준 하는데, 로에베와 에르메스가 대표적인 예. 에디터 **이혜미**



혁신적인 가죽 기술 공력으로 구현한 세 단위로 링크가 반복적으로 이어진 바스켓 형태의 토트백 디자인 에르메스.

아이스톤트 조소희

**Minimal Mules**

트렌드에 민감한 이라면 발등을 덮는 넓은 면적의 에퍼와 스퀘어 토를 갖춘 미니멀한 샌들이 몇 시즌째 런웨이 라일 웨어를 가리지 않고 빈번하게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챘을 터. 슬라이드를 신듯 발을 쏙 집어넣는 올 타입 샌들을 상대적으로 발목이 얇아 보이는 효과가 있을 뿐 아니라 어떤 옷을 입어도 무심한 듯 멋스러워 보이게 만드는 재주를 지녔다.



핸드 스티칭 디테일로 포인트를 준 킷 힐 샌들 85만원, 에디 토즈, 부드러운 양가죽 스퀘어 토 샌들 1백16만원 보테가 베네테라.

아이스톤트 조소희

**Rope Sandals**

로프는 이번 시즌 여러 브랜드에서 백, 슈즈에 이르기까지 곳곳에 즐겨 사용한 키 디테일 중 하나다. 런웨이 등장한 로프 샌들의 경우 디자인적으로 크게 새로운 것은 없었지만, 이를 스타일링한 방식에 주목하면 좋을 듯. 쿠틀라 타이가 느껴지는 극도로 우아하고 생생한 화이트 드레시나 사츠에 로프 샌들을 매치해 경쾌함을 기미한 발렌티노. 여름에 지치다 뒤류 보일 수 있는 데님 팬츠 록에 로프 샌들과 라피아 햇, 로프 벨트로 시각적 청량함을 준 디올 등이 좋은 예다.



에퍼와 솔 모두 나파 가죽을 꼬아 만든 로프로 차려낸 화이트 컬러 샌들 1백7만원 발렌티노 기라베니. 깔림 처리한 크림색 양가죽과 투톤 코드가 조화를 이루며 활동적 무드를 연출하는 샌들 1백30만원 사넬. 에디터 **이혜미**

플라워 프린트 드레스, 레드 스핑크스  
브라톱, 나뭇잎 모티프로 장식한  
스트랩 신발 힐, 레드 마이크로 백,  
얼룩말 패턴 마이크로 백 모두  
가격 미정 **플레어기** 바나, 그린 캄리 백  
3백47만원 로저 비비에.

플라워 프린트 재킷 3백45만원,  
스카트 1백49만원, 그린  
미니 바게트 백 1백49만원,  
플라워 프린트 바게트 백  
4백19만원 모두 **렌디**.



# spring temptation

봄, 화려한 프린트와 트렌디한 잇 백에 반하다.  
photographed by jung ji eun

플라워 프린트 드레스, 블랙 스트랩 핑프스, 골드 이어링, 주얼 네크리스, 초커, 브레이슬릿, 플라워 프린트 백 모두 가격 미정  
 알렉산더 맥퀸, 레드 컬러 마이크로 백 2백14만원 로저 비비에.



프린트 블라우스 2백12만원, 레드 밴츠 1백96만원, 블랙 신들 가격 미정, 레드 트와스트 스트랩 백 가격 미정 모두 자정시.

플라워 프린트 로브 가격  
미정 드레스 반노튼, 화이트  
슬리브리스 톱, 브라운 레더 백  
모두 가격 미정 에르메스.



플라워 프린트 드레스 가격 미정  
발렌티노, 핑크 스타드 마이크로 백  
가격 미정 발렌티노 가문버니,  
주얼 이어링 가격 미정 주이림.

프린트 실크 톱 & 레더 쇼츠  
 7백11만5천원, 화이트 샌들  
 2백7만5천원, 오렌지 컬러 파우치  
 1천38만원 모두 **보태가 베네타**.



스카이 블루 베스트와 스카트,  
 프린트 블라우스 모두 가격 미정  
**스포트막스**, 베이지 컬러 백  
 가격 미정 **막스마라**, 주얼 이어링  
 가격 미정 **주미림**.

레이 이어링  
 메이크업 **이영**  
 모델 **박희정**  
 어시스턴트 **김원민, 김승준**  
 스타일리스트 **채한석**



몰체온가베나 02-2092-6643  
 로저 비비에 02-6905-3370  
 썬디 02-2056-9023  
 알렉산더 맥퀸 02-2118-6171  
 지형시 02-546-2790  
 드리스 반 노튼 1644-4490  
 에르메스 02-542-6622  
 발렌티노 02-2051-4653  
 발렌티노 가문베나 02-2051-4653  
 보태가 베네타 02-3438-7682  
 스포트 막스 02-511-3935  
 막스마라 02-511-3935  
 주미림 joomilim.com

서울을 물들이고 있는 동시대 예술 감성 3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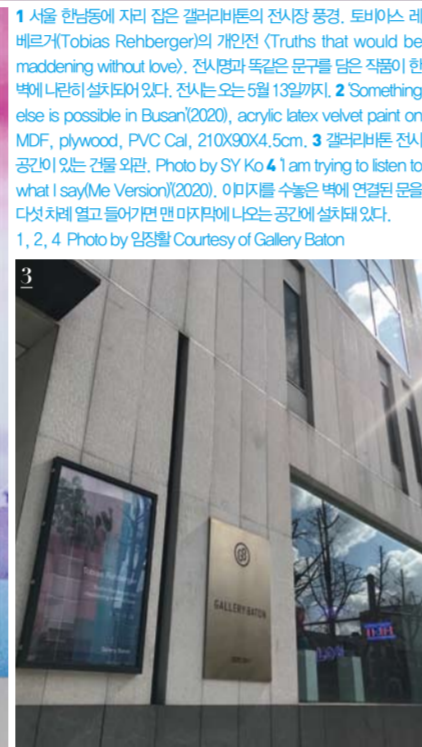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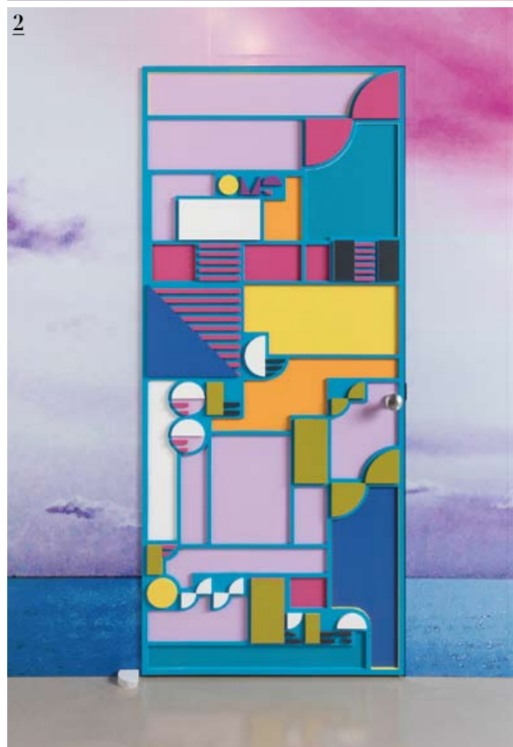
# meet the contemporary

흔히 포스트모던 시대의 미술을 가리켜 '현대미술'이라고 부르지만 미술계에서 '컨템퍼러리(contemporary)'라는 단어는 대개 '동시대'로 번역된다. 역사적인 관점과 개념으로 볼 때 '동시대 미술'은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막을 내린 뒤부터 오늘날까지 진행 중인, 그러니까 '전후 현대미술'을 뜻한다. 그만큼 전쟁은 끔찍한 상처를 남겼고, 이후 많은 것이 변화했다. 특히 주범이자 패전국인 독일의 자괴감과 트라우마는 상상 이상이 있을 것이다. 고뇌와 갈등은 예술적 에너지를 폭발시킨다고 했던가. 그래서인지 독일에서 걸출한 아티스트가 많이 나왔다. 어떠한 양식도 강령도 방향도 지향하지 않는 '포스트모던'의 시대정신을 구현해 현존하는 최고의 동시대 미술가로 평가받는 게르하르트 리히터도 전쟁의 포화로 쑥대밭이 됐던 옛 동독 드레스덴 출신이다. 마침 서울에서 오늘날 독일을 무대로 활약하는 동시대 작가들의 세계를 엿볼 수 있는 전시가 개최되어 주목된다.

5년 주기로 독일 소도시 카셀에서 열리는 현대미술전 도쿠멘타와 10년마다 찾아 오는 공공 미술 축제인 뮌스터 조각 프로젝트가 동시에 펼쳐진 2017년. 이해에는 '그랜드 아트 투어' 내지는 '문화 예술 기행'이라는 명목으로 독일을 위시해 유럽 일주를 감행한 이들이 꽤 많았다. 그 대열에 합류한 필자는 내친김에 크고 작은 독일의 여러 도시를 찾아다녔는데, 마침 85세 생일을 맞이한 게르하르트 리히터의 신작을 모은 전시를 그의 고향 드레스덴에서 감상하는 행운을 누리기도 했다. 리히터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 <작가 미상>에서 "예술만이 나치 이후 잃어버린 자유의 감각을 되돌려줄 수 있다"는 극 중 인물(백남준과 더불어 '플릭서스' 운동을 이끈 전위예술가 요제프 보이스를 모델로 삼은 캐릭터)의 대사가 나오는데, 격변기 속 몸부림과 성찰이 어려 있는 독일 작가들의 작품 세계는 '시대를 비추는 예술'을 꿈꿔 생각해볼 수 없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리히터를 비롯해 게오르그 바셀리츠, 안젤름 키머 등 세기를 관통하는 거장들을 차지하더라도 독일 미술계의 풍경은 여전히 흥미로웠다. 국적을 막론하고 프랑크푸르트, 뒤셀도르프, 베를린 등지에서 이 시대를 호흡하고 고민하며 자신만의 작품 세계를 구축해나가고 있는 작가가 많은데, 국제적 명성에 비해 우리나라에 덜 알려졌던 듯한 느낌이다. 그 아쉬움을 달랠 만한 전시들이 서울 하늘 아래 펼쳐지고 있다.

## # 토비아스 레베르거(Tobias Rehberger) \_ 갤러리바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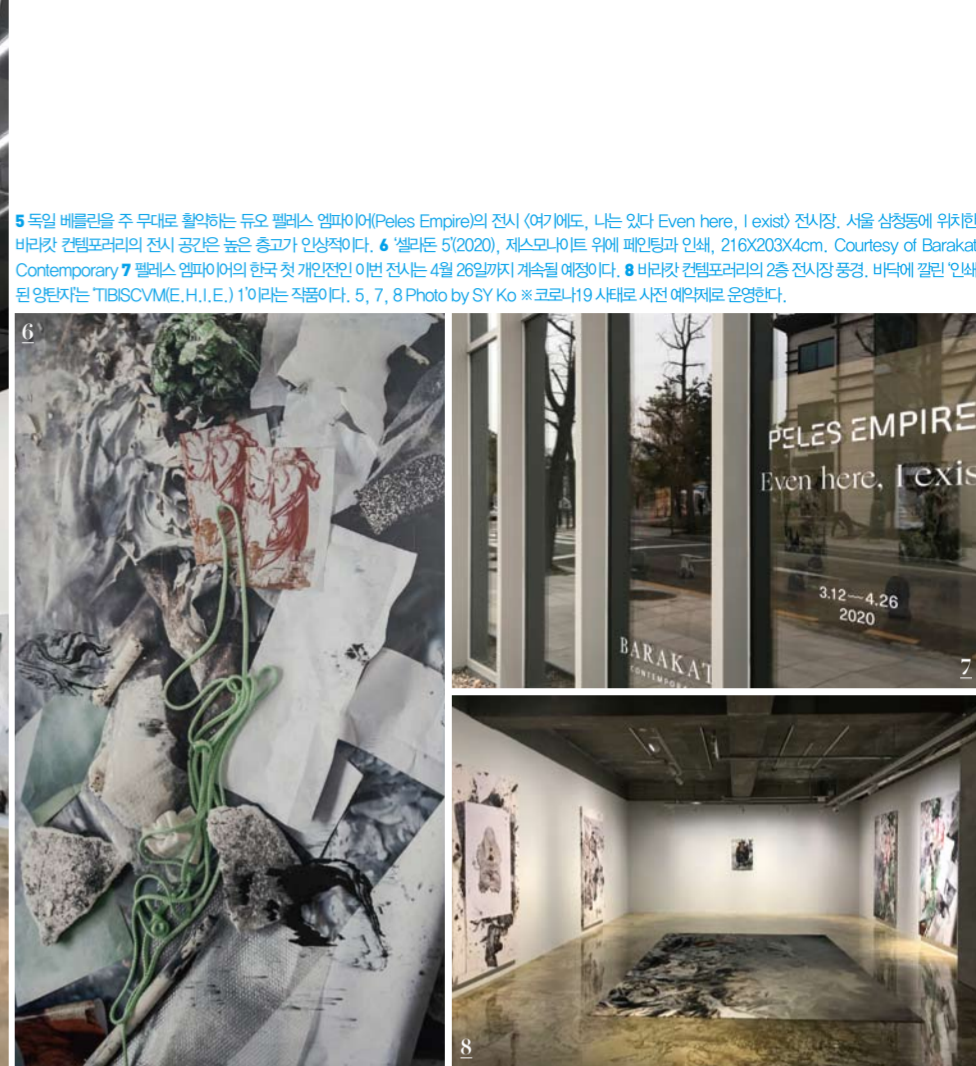
'예술의 섬'으로 불리는 일본 나오시마에는 '필수 코스'처럼 여겨지는 카페가 하나 있다. 착시 효과를 일으킬 정도로 환란한 줄무늬와 물방울무늬로 도배된 공간인데, 이 개성 만점 카페는 2009년 베니스 비엔날레에서 개인 작가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영예인 황금사자상을 받은 토비아스 레베르거의 작품이다. 그의 비엔날레 수상작도 비슷한 느낌의 카페였는데, 공통적으로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 전함의 위장용 무늬에서 착안했다는 '대중 카무플라주(dazzle camouflage, 위장 도색) 기법'을 반영했다. 2년 전쯤에는 낙동강 하구에 자리 잡은 을숙도의 부산 현대미술관에도 그의 카페가 들어섰다. 토비아스 레베르거는 '디자인 카페'를 연상시키는 작품으로 응용 예술 작품에 대한 보수적 경계심을 깨뜨렸다. 이렇듯 그는 조각-설치-건축, 미술-디자인, 예술-일상, 미학-기능 등 장르와 역할을 아우르는 이분법적인 경계 사이에서 '변화(transformation)'를 모색해온 작가다. 서울 한남동에 자리 잡은 갤러리바톤에서 진행 중인 <Truths that would be maddening without love>는 규모는 크지 않지만 토비아스 레베르거의 폭넓은 작품 세계를 기능하고 시각적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경험이다. 전형적인 '하얀색 입방체(white cube)'를 벗어난 여러 개의 방으로 구성된 전시 공간부터 흥미롭다. 푸르른 바다와 하늘이 펼쳐진 벽에 달린 문을 열고 들어가면 또 다른 색과 형태, 결코 점철된 이미지들이 등장한다. 이렇게 5개의 문이 계속 다른 공간으로 이끄는 데, 문 위에는 공통적으로 'Something Else is Possible'이라는 문장이 퍼즐 조각처럼 새겨져 있다. 작가의 설명에 따르면 다른 세계, 가능성 등을 의미하는 '문과 창문'은 그에게 매력적인 소재라고. 그런데 자세히 보면, 문을 열고 들어가는 방향의 벽면에는 주로 풍경 등 자연적 감성이, 다시 나올 때 보이는 방향의



벽면에는 인상이 강한 동물이나 인물 등 대조적인 감성이 흐르는 걸 발견할 수 있다. "잔잔함-역동성의 대비도 있었지만 일반적-개인적, 감성적-개념적 등의 다양한 변증법적 방식으로 읽힐 수 있어." 작가는 '문' 자체에 담긴 함의와 마찬가지로 이 역시 '다름(otherness)'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며 자신의 일관된 주제 의식을 설명했다. 문을 다 통과하면 3D 프린팅 기술로 만든 양증맞은 오브제들이 '재떨이'라는 공통된 이름으로 나오고, 이는 작가 특유의 카페처럼 사이키델릭한 공간으로 마무리된다. 작품의 조합이 전시명으로 읽히는 공간도 따로 있는데, 여기서 길가 풍경을 바라보는 운치도 제법이다.

## # 펠레스 엠피어(Peles Empire) \_ 바라캇 컨템포러리

루마니아 출신의 바르바라 볼프(Barbara Wolff)와 독일 작가 카타리나 스토퍼(Katharina Stöver)가 만나 듀오를 이루어 베를린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펠레스 엠피어'. 이 독특한 이름은 친구이던 두 작가가 2005년 같이 방문한 루마니아의 고성 '펠레스'를 본뜬 것이다. 르네상스·바로크·고딕·아르데코 등 다양한 양식이 위에 얹어 뒤섞여 있는, 단순히 '포스트모던'적인 성인의 방식을 보고 영감을 얻었다고. 이처럼 다른 것들의 섞임에서 오는 긴장감을 작업의 원동력으로 삼고 '혼종성(hybridity)'을 주제로 다뤄온 이 듀오가 서울에서 첫 개인전을 연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반가움이 앞섰다. 3년 전 뮌스터 조각 프로젝트에서 그들의 작품을 꽤 인상적으로 접한 기억이 있어서다. 무너지는 성의 테라스 이미지를 담은 기울어진 8m 높이의 설치물은 결코 우스꽝스럽게 웅장한 건축양식을 비교는 제스처를 취하고 있지만, 안으로 들어가면 아담한 바(bar)로 변모한다. 그곳을 찾는 동시대 작가들과 만나 대화를 시도한 '소통과 '실현'의 장이었다. 이들은 베를린에서도 다른 작가들을 초대해 전시를 하는 공간을 꾸리는



등 비슷한 유형의 프로젝트를 계속해오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어떤 전시를 보여줄지 기대감이 쏠았다. 더욱이 그들과 협업을 하게 된 서울 삼정동 갤러리 바라캇 컨템포러리는 유달리 층고가 높은 1층 내부 구조 덕분에 매력적인 전시 공간이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작가들은 내한하지 못했지만, 다행히 둘의 공함은 성공적이었다. 작가들은 매끄러운 에폭시 재질의 살짝 얼룩덜룩한 갤러리 바닥을 재치 있게 활용했다. 갤러리 스태프가 바닥을 촬영해 A3 크기 용지로 출력한 후, 높다란 갤러리 벽면에 뒤덮듯이 붙여놓았다. 연한 갈색으로 똑같은 물들인 벽과 바닥에 그들의 그림과 조각 작품이 어우러진 광경은 꽤 근사한 시각적 희열을 선사한다. 이는 과거에 펠레스 성의 공주 방을 찍은 사진을 자신들의 아파트 거실 벽면에 붙여 재현한, 작가들이 즐겨 쓰는 방식을 활용한 것이다. "3차원적 작품을 2차원 방식으로, 혹은 그 반대로 보여준다"고 자신들의 작업을 설명하는 이 듀오는 "서로 다른 차원(dimension)에 생기는 해석의 차이에 관심이 있다"고 강조한다. 이처럼 이질적 조합에서 새로움을 창출하는 작업의 매력은 갤러리 벽에 걸린 조각 작품 '셀라돈' 시리즈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요묘한 연녹색 노끈이 눈길을 끄는 이미지의 조합이 4cm 두께의 제스모나이트 위에 프린트된 이 평면 작품들은 고려청자를 부르는 영어 명칭 '셀라돈(celadon)'과 17세기 희극의 주인공으로 '이상향(arcadia)'을 추구한 목동 '셀라돈'에서 동시에 차용한 것으로, 역설적으로 완벽한 유토피아는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음을 뜻한다고 한다.

## # 샌정(Sen Chung) \_ OCI미술관

무심코 그린 듯한, 혹은 제멋대로 붓을 휘두른 듯한, 그래서 '미완성'이 아니냐는 얘기도 종종 듣는 그림. 하지만 특유의 노스탤지어 감성 때문인지 왠지 모르게 안아주고 싶은, 보듬어주고 싶은 느낌을 자아내기도 하는 묘한 매력을 품은 그림. 독일 뒤셀도르프를 기반으로 서울을 오가면서 작업하는 한국인 작가 샌정의 작품에 대해 팬들은 이렇게 말한다. 회화에 대한 세상의 시선이 어떻게 간에 추상과 구상의 경계에서 꾸준히 캔버스에 집중해온 그의 신작을 이번에는 갤러리가 아닌 미술관에서 만날 수 있다.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자리한 OCI미술관에서 진행 중인 <VERY ART>라는 전시(오는 5월 16일)이다. 1층에서 3층까지 공간을 그의 흐릿한 그림들이 담백하게 채우고 있다. 그의 신작들은 더 흐릿해졌고, 실 몇 가닥을 풀어놓은 듯 보다 단순해졌으며, 한층 더 쓸쓸해 보이기도 한다. 멀리서 보면 잔잔한 듯하지만 가까이서 한참 응시하고 있노라면, 파장 같은 것도 느껴진다. 그가 소속된 초이엔라거 갤러리의 큐레이터 말을 빌리자면 "인듯 모노톤 화면이 균질하게 정돈되어 있는 듯하지만, 물감의 두께감, 선의 갈라짐, 색의 충출 등 회화적 요소를 때문에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다"고. 미세하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긴장과 균열이 섬세하게 파문을 일으킨다는 것이다. 작가 스스로는 이 미묘한 긴장감을 '부유감'으로 표현한다. 감각과 사유가 서로를 끊임없이 탐색하고 파고들다가 그 지난한 과정이 마침내 내리앉았을 때, 캔버스 위에 침전한 사유가 그의 '그림'이 된다는 설명이다. 인듯 이해하기 힘든 얘기지만, 그의 사유는 분명 내면 세계로 더 깊숙이 들어가는 듯하다. 한때 함축된 자연, 인물의 형상처럼 보이는 구상적인 요소를 녹이기도 했던 그의 작업 세계가 무채색 배경에 단순한 선과 면의 형태만 남은 추상으로 변모한 이유도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흥미롭게도 그는 이번 전시를 '로맨틱 추상'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싶다고 했다. 늘 자신의 관점에서 한 자리를 차지했던 18세기와 19세기 낭만주의와 연결되는 맥락에서 자신만의 '새로운 로맨틱리즘'에 다가서는 자세로 작품에 임할 때 문이란다. 샌정의 로맨틱리즘은 어떻게 담백한 슬픔을 머금고 있는 걸까? "이번 신작들에는 '의도적인 단조로움' 뒤로 기대하지 않았던 난해함이 의미심장하게 공존하는데, 이처럼 상반된 두 세계가 이리저리 립경과 인상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명상적인 무드를 넘어 캔버스를 지켜보는 이들에게는 때때로 고적하게 다가올 수도 있겠지요." 역시 그다운 답이다. 글 **고성연**



9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자리한 OCI미술관에서는 독일과 한국을 오가면서 활동하는 중국 작가 샌정의 개인전 <VERY ART>가 열리고 있다. 무료입장, 오는 5월 16일까지. Photo by Photo Lee Manhong, Courtesy of the artist and OCI Museum



10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자리한 OCI미술관에서는 독일과 한국을 오가면서 활동하는 중국 작가 샌정의 개인전 <VERY ART>가 열리고 있다. 무료입장, 오는 5월 16일까지. Photo by Photo Lee Manhong, Courtesy of the artist and OCI Museum

11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자리한 OCI미술관에서는 독일과 한국을 오가면서 활동하는 중국 작가 샌정의 개인전 <VERY ART>가 열리고 있다. 무료입장, 오는 5월 16일까지. Photo by Photo Lee Manhong, Courtesy of the artist and OCI Museum

12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자리한 OCI미술관에서는 독일과 한국을 오가면서 활동하는 중국 작가 샌정의 개인전 <VERY ART>가 열리고 있다. 무료입장, 오는 5월 16일까지. Photo by Photo Lee Manhong, Courtesy of the artist and OCI Museum

# scent of spring

싱그러운 나뭇잎과 살랑이는 바람.  
봄에 잘 어울리는 향수 6.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우부터 시계 방향으로) **담타크 오이드 오드 투왈렛** 유자와 그린 민다란을 더한 싱그러운 시트러스 향에 시간이 흐름수록 라즈베리 향이 더해져 은은한 잔향을 남긴다. 100ml 17만5천원. **조 말론 런던 라일 바질 앤 민다란** 상큼한 민다란과 자몽, 특 쓰는 듯한 바질과 라일락, 앵버 우드와 파슬리가 어우러진 매력적인 향. 100ml 18만8천원. **샤넬 샹스 오 후레쉬** 상의 기쁨을 향으로 표현한 제품. 시트러스 노트가 화이트 머스크와 민나 상큼한 느낌으로 시작한다. 워터 하이브스 노트와 앵슬 루트 재스민 향기가 부드러운 분위기를 불어넣고, 티크 우디 노트로 마무리되는 상쾌한 향. 50ml 12만6천원. **프라다 레스 인퓨전 디 프라다 베터버** 베터베르와 진저, 베르가모트, 라일, 민다란과 타기 로즈 등 천연 재료로 꽃잎과 초여름 사이 돌아오는 신록의 푸른빛을 표현했다. 100ml 17만2천원. **에르메스 운 지르멜 수르 프와 오드 투왈렛** 사과 나무와 배 나무, 새콤달콤한 프루티 계열의 향이 매력. 아센초 향과 조화를 이루어 생동하는 봄의 찬란함을 연상시킨다. 100ml 16만8천원. **바이레드 선데이드 오드 퍼플** 민다란과 레몬으로 시작해 재스민 상쾌과 네롤리가 향긋함을 선사하고, 코트 캔다와 소킨 머스크로 달콤하게 마무리되는 향. 100ml 29만2천원. **에디터 이주이**

# love your eyes

주름과 탄력, 다크서클과 아이 백 등 다양한 눈가 고민.  
이들 모두 한 방에 해결해줄 슈퍼 아이 크림 리스트 7.  
photographed by choi seung hyuk



(우부터 시계 방향으로) **디올 캡티브 토탈 썬 에너지 퍼밍 앤드 링클-코렉팅 아이 크림** 피부 재생에 탁월한 콩고자, 피오니, 화이트 밀리 추출물 등 활력을 더해주는 성분을 함유했다. 밤 타입 제형이 피부에 닿았을 때 부드럽게 녹아 강력한 보습 효과를 발휘한다. 15ml 12만 5천원. **시슬리 시슬리아 탭티칼 앙티아주 아이 앤 림 콘투어 크림** 피부 톤 개선에 효과적으로 작용하는 페르시안 아카시아와 린데라, 탄력을 부여하는 콩 팥과이드 추출물과 이데 노신, 그리고 부기 방지를 다크서클 관리에 도움을 주는 아틀라스 시더, 발효 생유, 패시프 루츠 추출물을 조합한 식물 활성 성분을 함유했다. 눈가는 물론 미세 주름이 신경 쓰이는 입가 주변 피부까지 케어 가능하다. 15ml 23만원. **샤넬 리프트 아이 크림** 피부 장벽 강화

와 콜라겐 함성을 촉진하는 식물성 인피파 성분, 다크서클과 부기를 완화하는 피이도 에티 브 펄플렉스를 담았다. 비즈 워스와 시아버터 성분이 강력한 보습 효과를 주고, 향료를 배제해 민감한 눈가 피부에 적합하다. 15g 13만7천원. **랑콤 오 보메 인텐싱 아이 컨투어 크림** 수포질 피부 노화와 윤곽이 무너지는 것을 막아주는 데 효과적인 아이리스 플로렌티나, 피부 손상을 막아주는 알루미네이팅 콜로이드 EX, 피부 톤 개선과 탄력 저해에 효과적인 로즈메리 추출물, 주름 개선에 탁월한 레티놀 ACE 등 다양한 핵심 성분으로 풍부한 영양인기를 선사한다. 15ml 32만원. **라프라이 화이트 케어 아이 엑스트라오디네어** 특보적인 기술력을 자랑하는 브랜드의 일루미네이팅 분자 푸미도스와 글든 케어 추출물이 눈가 피부

를 맑고 깨끗하며 밝고 또렷하게 입체 케어한다. 내장된 시타민 펄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면 결막하안 속진과 피부 진정에도 효과적이다. 20ml 70만6천원. **에스티 로더 리-뉴트리브 안티미트 다이아몬드 트랜스포머티브 에너지 아이 크림** 리치허프틴 가벼운 크림 타입으로 블랙 다이아몬드 트러플 추출물이 눈가에 탄력과 생기를 부여하고, 영양 진주 성분이 피부부를 매끄럽게 관리해준다. 진정 효과가 뛰어난 24K 골드 성분도 함유했다. 15ml 38만원. **클레 드 peau 뷰티 제네라티브 수프리미 컨투어 크림** 24K 골드 성분에서 추출한 줄기세포가 눈가에 활력을 불어넣고 밝은 빛을 선사한다. 피부에 닿았을 때 끈적이지 않고, 가볍고 산뜻한 사용감을 자랑하는 크림 타입이다. 15ml 37만2천원. **에디터 이주이**

# editor's Pick

봄으로 물든 이달의 뷰티 아이템.  
photographed by yum jung hoon

(우부터 시계 방향으로) 세르주 루틴 알파벳 매트 립스틱 #No1 트루 레드 강력한 매트 립스틱을 찾고 있다면 이 제품을 추천한다. 단 한 번만 발라도 완벽한 발색력을 자랑 하니까, 이쁘긴 오일을 함유해 매끄럽게 발려 입술에 밀착된다. 매끈하게 떨어지는 직육면체 디자인도 소장 욕구를 자극한다. 0.9g 12인원. 문의 02-6905-3769  
*\_by 에디터 이지미*

**겐조기 벨로 드 주르 드림 나이트 마스크** 저녁 세안 후 얼굴에 얇게 펴 바르고 자면 다음 날 아침 꿈의 피부가 실현된다. 무엇보다 아침 세안 시 느껴지는 부드러운 피복감이 중독될 지경이다. 겐조기 마스크는 4차 생인화이트 화이트 로투스와의 결합으로 피부에 새벽에 시드는 옐로 드 나이트 마스크를 결합한 생인화이트 피부 밸런스를 맞추주며 활력을 불어넣는다. 75ml 11인원. 문의 080-344-9500 *\_by 에디터 장민준*

**나스 매트 브론징 파우더 #리구나** 색조 제품 중 가장 믿고 사용하는 나스. 파우더 자체가 워낙 부드럽고 이상적인 컨투어링 메이크업이 가능하다. 자연스럽게 연출 되어 아이섀도우 사용해도 좋을 듯, 시뮬성 오일을 함유해서인지 건조하지 않고 편안하게 느껴진다. 8g 5만4천원. 문의 02-6905-3747 *\_by 에디터 이지미*

**조르자오 아라비나 립 마이스트 #205** 빈 브릭 조르자오 아라비나는 대체로 레드 컬러 팔레트에서 늘 고급스러운 자질을 정확히 포착하는 브랜드다. 이틀이 스킨 나쳐 레드에 온 다른 립 브릭 색상을 섞은 새로운 무드의 립 마이스트를 내놓는다. 크리미한 립 마이스트와 함께 마스카라 그라데이션을 주듯 자연스럽게 펴 바르면 꽃잎 같은 입술이 완성된다. 6.5ml 4만2천원. 문의 080-022-3332  
*\_by 에디터 이지미*

**연락 데일리 라이트 화이트 선 프로텍션 SPF 50+ PA+++** 무엇보다 변들거림과 백탁 현상 없이 빠르고 가볍게 흡수되어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제품. 마치 수분 크림을 바른 듯 편안하고 촉촉한 발림성도 마음에 든다. EWG 그린 등급을 받은 안심 성분 약산성 제품이라 민감성 피부에도 안심. 40ml 4만8천원. 문의 1644-4A30 *\_by 에디터 이지미*

**시슬리 큐어 이드라 탭 푸어밍 탠트오 오일스차이저 제이** 선풍의 구본 없이 마스크로 얼굴을 공격 가리는 요즘, 화장을 한걸 가볍게 한다는 0들이 나왔다. 이걸로 답답한 화장도, 인כות 원치 않는 상황에서 간편한 피부 표현하고 싶다면 스킨케어와 메이크업 기능을 모두 갖춘 시슬리의 울인원 제품을 추천한다. 대체로 활성 성분으로 피부가 활력을 얻는 데다, 끈적이지 않고, 윤광까지 잡아준다. 자연스럽고 예쁜 피부를 얻을 수 있다. 40ml 1만2천원. 문의 080-549-021 *\_by 에디터 이지미*

**루이비통 화이트 탠트오** 그라스 재스민, 샴쌍두의 싱그러움과 화이트 모사, 톱톡 쏘는 듯 달달한 라즈베리 향, 바닐라와 샌들우드, 마스크의 세련되고 차분한 향이 어우러져 세련된 꽃 내음을 풍긴다. 발랄한 인상을 주고 싶은 날 뿌려보면 좋을 듯. 매일 아침 7분마다 향수를 골라 뿌리면 에피도 달콤한 이 향이 전진하게 될 듯하다. 100ml 3만6천원. 문의 02-3432-1854 *\_by 에디터 이지미*

**샤넬 푸드 투 웨이 베르셀 리브로 #30** 날씨가 따뜻해지기 시작하면 지성 피부인 에디터는 무엇보다 화장이 무너질까 걱정된다. 그래서 파싱 파우더는 선택이 아닌 필수. 순화력이 부드러운 파프에 파우더를 소량 묻혀 가볍게 두드려도 타박한 것만 하던 메이크업 지성이 배가된다. 진주층은 물론 푸드 오일도 자연스럽게 케어해 만족도가 높다. 35g 7만4천원. 문의 080-332-2700 *\_by 에디터 이지미*

**에스티 로더 큐어 얼라 리브 콜링 하이dra터 #콜드림** 수분을 머금은 말랑말랑한 발림의 하이dra터다. 시원한 감촉의 콜링 효과를 지니는 것이 독특한데, 자극하지 않은 기본 좋은 상쾌함이 느껴진다. 볼록 솟아오른 등 형태도 얼굴 구석구석은 물론 데 콜레도 보기가 쉬울 듯. 한 번의 타인으로 화하게 연출하니 좀 더 자연스러운 메이크업을 원한다면 손가락으로 톱톡 두드리 불린듯 할 것. 5g 3만4천원. 문의 02-6971-3212 *\_by 에디터 이지미*

**리프라리 스킨 케어 에센스 인 로션** 세안 후 바로 사용하는 프리 세럼 트리트먼트 에센스인데, 포물라가 매우 가벼워 아침저녁 사용해도 부담스럽지 않다. 케어와 워터를 사용해 단 2~3명 동안으로도 피부 깊숙이 수분과 영양을 공급하며 즉각적인 피부 탄력과 탄력 개선에 효과적이다. 150ml 3만3천원. 문의 02-511-6626 *\_by 에디터 장민준*

**리베르테르 포티사 칸디사너** 두 달 전 피마를 한 뒤부터 눈에 띄게 푸석해진 머릿결. 끝을 다 잘라내고, 이빨과 에센스를 사용하는데도 여전히 푸석스킨이 쓰였다. 자연이 추천한 이 칸디사너는 싱그러움 시트러스 계열 향이 마음에 들어, 크림 타입 텍스처와 모발에 발리는 부드러운 느낌도 좋았다. 100% 자연 유래 성분이어서 두피나 모발에도 자극이 없는 듯, 그리고 무엇보다 용량이 커서 좋다. 600ml 5만2천원. 문의 1899-4802 *\_by 에디터 장민준*

**랑콤 탭 콜라피피 하이dra팅 파운데이션 #P-01** 일명 락트 유백을 중화하게 만든 전설의 아인텔, 랑콤 탭 콜라피피를 가만히 놓는다. 그런데 7에 스캐커 기 술력을 대변하는 탭 콜라피피까지 결합한 궁극의 파운데이션이 출시됐다. 제품명에서 유추할 수 있듯 비오는 즉시 느껴지는 풍부한 수분감이 인상적이다. 에센스처럼 가볍고 워터러블 포물라로 발리는 듯 얇게 펴 바를 수 있다. 덕분에 얼룩, 자국 같은 균일한 피부 표현이 가능한 데다 미유리같은 보습보습, 그도 물론 완벽하다. 30ml 7만2천원. 문의 080-022-3332 *\_by 에디터 이지미*

**4711 콜로럴 컬렉션 라일락 EDC** 오라지널 오 드 콜로리의 프레스하네 부드러움을 대체. 평소 익숙한 라일락 향에 베르가모트, 피오라피, 복숭아 같은 상쾌하게 가벼운 향을 조화해 달콤한 것이 특징. 베이스 노트로 샌들우드와 마스쿠를 조합해 마무리했다. 무엇보다 착한 가격이 마음에 든다. 누가에게나 어울릴 만한 향과도 선물로도 좋을 듯. 100ml 4만원. 문의 02-3443-1805 *\_by 에디터 장민준*



# SHOWROOM

BEAUTY



**라프래리 화이트 캐비아 아이 엑스트라오디네어** 론칭 행사 지난 2월, 눈가에 광채를 선사해줄 신제품 아이 크림을 선보이는 특별한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빛의 형태라는 주제를 건축 기본 원리에 빗대어 설명하면서 눈의 입체적인 구조와 빛의 상관관계를 연구해 탄생시킨 아이 크림의 이력을 도왔다. 신제품 화이트 캐비아 아이 엑스트라오디네어는 강력한 입문미네링 분자인 루미도스와 골드 캐비아 추출물로 촉촉하게 늘려 피부를 환하게 밝혀준다. 문의 02-511-6626

**에스티 로더 리-뉴트리브 얼티미트 레디언트 화이트 브라이트닝 유스 세럼 & 크림** 럭셔리 스킨케어 라인인 리-뉴트리브 얼티미트 레디언트 화이트 라인에서 브라이트닝 유스 세럼과 크림을 새롭게 출시했다. 고귀한 원료인 화이트 투베로즈를 함유해 디크 스킨을 드라마틱하게 개선해주고 강력한 수분을 공급해 피부 컨디션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톡톡히 해낸다. 문의 02-6971-3212

**볼리 1803 볼 데 뉴제** 브랜드에서 처음으로 출시한 립밤 제품인 볼 데 뉴제는 보습력이 뛰어난 시어버터와 샤크기 추출한 고보습 오일을 함유해 건조하고 거칠어진 입술에 영양을 공급하고 수분을 보충해준다. 클래식한 패키지에 원하는 이니셜을 금박으로 새겨 넣을 수 있는 커스텀이징 케이스에 담아 소장 욕구를 자극한다. 은은한 향으로 남녀 모두 부담 없이 사용 가능하다. 문의 1544-5114



**로로피아나**  
**아들리에 에르메스 전시 (새로운 상점)** 오는 5월 8일, 제18회 에르메스 재단 미술상 수상 작가인 전소정 작가의 전시 (새로운 상점)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건축가이자 사진 이상의 초기 시를 모티브로 현대와 근대까지는 서로 다른 공간의 축을 교차시켜 상상의 탈주로를 만들고자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사진은 전소정 작가의 절망하고 탄생하라 영상 스틸(24분 45초) 것이다. 전시는 7월 5일까지 열릴 예정이다. 문의 02-3015-3248

**브룩스 브라더스 레드 플러스 퍼포먼스 시리즈** 크루넥 스웨터 수분을 빠르게 건조하는 콜맥스® 기술을 더한 크루넥 스웨터는 어떤 날씨에도 쾌적하고 편안하게 착용할 수 있다. 기본에 충실한 디자인이지만 밑단에 로고 자수로 디테일을 더해 심심하지 않다. 오렌지, 그린, 블루 등 봄, 여름에 맞는 다양한 컬러로 출시한다. 문의 02-2052-8822

**모나 라탄 에코 백** 실루엣이 독특한 신제품 라탄 에코 백은 브랜드의 아이코닉 백인 라탄 백을 뒤집어 재탄생시킨 백이다. 기존 라탄 백과 마찬가지로 미니멀한 라인에 현대적인 디자인으로 오랜 시간 들어도 질리지 않는 매력을 갖는다. 소가죽을 사용했으며, 탈착 가능한 스트랩으로 토트백, 숄더백 등 다양하게 연출할 수 있다. 문의 02-596-9620

**디올 디올 트레블 라지** 크리에티브 디렉터 마리 아 그라치아 치우리가 무수 디올의 끝없는 호기심과 꿈에서 영감을 받아 제작한 디올 트레블 라지 라인을 선보인다. 유일한 디자인과 실용성을 고루 갖춘 디올 트레블 라지 라인에서는 로고로 장식한 수트케



**구찌**  
**NO SPACE JUST A PLACE**  
이 공간, 그 장소 : 헤르토토피아 서울의 다채로운 문화 경관과 현대미술을 지원하기 위해 구찌가 나섰다. 멀티 레이어 프로젝트로 진행되는 전시를 통해 개인이 타인 혹은 주변 환경과 관계를 맺는 새로운 방법을 했다. 브랜드 디렉터 클레어 웨이트 켈러가 런던로 비평적인 미래를 만들 수 있는 장소로서 공간의 개념을 이야기할 예정. 4월 17일부터 7월 12일까지 대림미술관에서 개최된다. 문의 02-3452-1921

**자랑시**  
**본드 백** 기존에 출시한 본드 백 라지와 미니 사이즈에 이어 이번에는 미니 버전들 새롭게 출시했다. 브랜드 디렉터 클레어 웨이트 켈러가 런던로 비평적인 미래를 만들 수 있는 장소로서 공간의 개념을 이야기할 예정. 4월 17일부터 7월 12일까지 대림미술관에서 개최된다. 문의 02-3452-1921

**로로피아나 2020 S/S 컬렉션** 이번 시즌 선보이는 이프탄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즐겨 입는 셔츠 모양 긴 상의로, 가볍고 편안한 해 여름에 착용하기 적합하다. 옆 솔깃과 벨트 디테일로 현대적인 느낌을 더했다. 스타일링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즐겨 입는 셔츠 모양 긴 상의로, 가볍고 편안한 해 여름에 착용하기 적합하다. 옆 솔깃과 벨트 디테일로 현대적인 느낌을 더했다. 스타일링은 메소포타미아에 넣을 수 있는 패시브 구조로 이루어졌다. 물건을 수납하기 용이하며, 필요에 따라 언제든 원상복구해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 미니 백은 작지만 넉넉한 수납공간을 갖춰 데일리 백으로도 완벽하다. 문의 02-546-2790

**로로피아나 2020 S/S 컬렉션** 이번 시즌 선보이는 이프탄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즐겨 입는 셔츠 모양 긴 상의로, 가볍고 편안한 해 여름에 착용하기 적합하다. 옆 솔깃과 벨트 디테일로 현대적인 느낌을 더했다. 스타일링은 메소포타미아에 넣을 수 있는 패시브 구조로 이루어졌다. 물건을 수납하기 용이하며, 필요에 따라 언제든 원상복구해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 미니 백은 작지만 넉넉한 수납공간을 갖춰 데일리 백으로도 완벽하다. 문의 02-546-2790

**반클리프 아펠 프리블 컬렉션** 아름다운 꽃잎 모티브를 상징적으로 풀어낸 프리블 컬렉션은 브레이슬릿과 2가지 시크릿 위치를 포함해 총 8가지 제품으로 구성했다. 그중 프리블 브레이슬릿은 옐로 골드와 다이아몬드를 매치했고, 크기가 다른 7개의 꽃잎 모티브를 미려 폴리싱해 따스한 봄 느낌을 살렸다. 문의 1668-1906

**피에레 라얌라이트 갈라 워치(Ref. G0A45163)** 감각적이고 유려한 곡선과 비대칭 로그로 시방만는 라얌라이트 갈라 컬렉션의 새로운 위치를 출시했다. 친화적인 다이아몬드와 다양한 블루 사피어로 그라데이션 효과를 주어 라얌라이트 갈라 컬렉션에서 볼 수 있는 상징적인 곡선 디자인을 더욱 아름답게 연출했다. 라얌라이트 갈라 워치는 개별 번호를 부여한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출시해 소장 가치가 매우 높다. 문의 02-3479-1802

**에거 르클르르 워치** 문 세미터 워치 블루 컬러 다이얼과 핑크 골드 케이스의 조화적 이름



FASHION

JEWEL&WATCH





CHANEL